치과신문
전국 치과 개원의를 위한 전문지

종합

조선대학교 치과산업고도화지원센터 국제 심포지엄 성료

'디지털 치과교육' 글로벌 협력 확대

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등록 2026.07.23 16:01:38



▲ (사진제공_조선대학교)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조선대학교 치과산업고도화지원센터(센터장 손미경)가 지난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조선대치과병원 국제치과교육아카데미(G10 IDEA)와 함께 인도네시아 에어랑가대학교(Universitas Airlangga) 치과대학 보존과 교수 및 수련의 30명을 대상으로 '제21회 International Dental Symposium'을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커텍티드 의료산업 생태계 활성 촉진사업' 기술마케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심포지엄은 해외 임상의와 교육기관 간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술 연수를 통해 국내 디지털 치과의료기기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Digital Restorative Dentistry Masterclass'를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디지털 치과 임상기술을 중심으로 한 이론 강의와 라이브 수술, 구강 및 안면스캐너 교육, 디지털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보철 디자인 핸즈온 교육, 최신 근관치료 및 디지털 수복 과정 등 이론과 실습을 연계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는 에어랑가대학교 Dr. Widya 교수와 조선치대 보존과 황호길·민정범·박태영 교수, 보철과 송주헌·손미경 교수, 광주보건대 치기공과 이정환 교수 등이 참여해 디지털 수복 치료와 관련된 임상 경험과 술식을 공유했다.

오스템임플란트 해외 OIC팀이 교보재를 지원했으며, 메디트, 덴토리, 힐링스, 이피덴트 등 국내 기업도 제품 전시와 활용 교육에 참여했다. 교육생들은 강연과 실습에 활용된 장비와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사용성을 평가했으며, 국내 디지털 치과의료기기의 기술력도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미경 센터장은 "이번 기술 연수는 국내 치과 소재·부품과 의료기기의 우수성을 해외 의료진에게 직접 소개하고 대학 간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해외 대학 및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최신 치과 임상기술을 공유하고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는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